



01

야로슬라브 올샤 Jr. 주한체코공화국 대사

한-체 교류사에 대해 언급하자면,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21년 전 체코(당시 체코슬로바키아)와 대한민국간 최초로 외교협정이 성사된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는 사실 매우 최근에 맺은 실질적인 협정으로 이후 양국간 활발한 교류의 초석이 되었고, 비 유럽 국가(중국, 미국, 일본 순) 중에서는 체코 국내에서 네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크며, 무역량 면에서도 2010년 기준으로 23억불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 체코 투자 규모는 지난 20여 년간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소개된 대표적인 체코 제품에는 크리스탈, 디자인, 펄스너 맥주, 수력 터빈 등이 있으며, 드보르작, 스메타나 같은 유명 체코 작곡가들의 음악과 뮤지컬, 대중음악이 한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컴퓨터 등과 한국 영화 등이 대중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10여 년 전 체코인이 본 한국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엔리케 스타코 브라즈가 찍은 서울사진

이번 전시는 1901년 제물포를 통해 서울을 방문한 체코인 브라즈가 서울 방문시 촬영하여 남긴 50여 점의 서울 사진들과 이후 여행기를 비롯한 체코인들이 남긴 한국에 대한 기록을 소개함으로써 20세기 전반 당시 체코인이 인식하고 있는 조선과 서울의 모습을 알리고자 합니다.

<1901년 체코인 브라즈의 서울 방문>展

서울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 4월 14일~6월 12일



02



03

위에 언급한 사실들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 교류를 보여주는 실례들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체코와 한국의 교류가 시작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1886년 3월15일로 이날은 서울 사통의 한 주택에서 중년의 한 외국인 남성이 천연두로 사망한 날입니다. 이 사람은 막스 터블스라는 사람으로 미국 잡지인 Harper's지의 기사제보를 위해 제물포에 한달 전에 도착했으며 터블스는 체코 중부지역인 보헤미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사망하게 된 최초의 체코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사료에서도 그의 업적이나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체코와 한국 교류사에 길이 남을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코의 가장 영향력있는 여행작가였던 브라즈

이처럼 “최초”라는 개념이나 양국간 무역현황 등의 통계적 사실 혹은 기록과는 별개로 과거 체코인에게 한국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을 꼽자면 엔리케 스타코 브라즈를 들 수 있습니다. 브라즈는 사진가이자 작가로서, 남아프리카를 탐험한 에밀 홀루브와 중남미의 식물학을 연구한 보이테흐 프리츠와 함께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독립 이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체코 여행가 중 한

명입니다. 브라즈는 여러 편의 저술과 더불어 수 차례 강연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체코 밖 세계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기행 작가입니다. 체코 사회가 인접해 있는 유럽국가 외에 멀리 떨어진 외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브라즈를 비롯한 당시 탐험가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즈가 강연에서 소개했던 수 만 점의 사진 자료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부터 태평양 군도에 이르기까지, 또한 아메리칸 인디언에서부터 멀리 인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대륙의 내용을 망라할 정도로 규모나 내용면에서 방대함을 자랑합니다.

뛰어난 사진작가였던 브라즈는 1880년대 중반부터 현재의 가나 지역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사진기록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의 사진은 멀게는 뉴기니부터 산업화된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구분을 두지 않았고 특히, 그의 사진은 강연과 교재로 활용이 용이하도록 상당히 묘사적인 각도에서 기록된 편입니다. 다행히도 그의 방대한 소장품들은 훼손 없이 그의 사후 체코 프라하에 소재한 아시아 문화 전문연구기관인 나프르스텍 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브라즈가 기증한 사진자료들은 나프르스텍 박물관에서 전문적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게 될 이번 전시에서는 브라즈가 촬영한

서울 사진들이 소개될 예정인데, 1930년 브라즈가 사망한 후 출판이나 공식적인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당시(1900년대초) 서울에 대한 사진자료가 그리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브라즈 사진기록이 당시 서울과 한국에 대한 풍부한 자료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체코국립박물관 산하 나프르스텍 박물관(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문화 전문박물관),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과거 한국에 대한 좀 더 새로운 시각과 모습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국문번역 : 이희숙(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 공보관)

01

1901년 서울의 풍경

02

서울기행문이 실린 책들

03

남태평양 탐험시기의 브라즈

04

막스 터블스의 묘비

05

야로슬라브 올사 Jr. 주한체코공화국대사



04



05